

# 가정의학과 수련과정에 보완대체의학 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의견 및 교육경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가정의학교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교실

옥선명 · 김철민 · 최환석 · 주상연 · 신호철\* · 송찬희<sup>†</sup>

**연구배경:** 보완대체의학 이용이 늘어나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와 수련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차 수렴 된 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에 보완대체의학의 교육도입의 필요성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의견,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법:** 2006년도 2월~5월 사이 대한가정의학회에 수련 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로 등록된 262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배포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262명 중 107명(40.8%)의 완성 설문을 얻었다.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의 77.6% (83명)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의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6.8% (52명)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한다고 하였다. 교육 내용은 36.4%에서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내용을 집담회에서 다룬다고 하였다. 72.9% (78명)에서 향후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61.7% (66명)에서 교육 주제가 대한가정의학회가 되어 한다고 답하였다.

**결론:** 많은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 교육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경험은 이에 비해 적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중심 단어:** 보완대체의학, 교육,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지도전문의

## 서 론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은 '현재까지 정통의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양한 의료와 건강관리의 체계 및 의료기술 행위와 의료 산물'로 정의<sup>1)</sup>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완대체의학 이용을 보면, 1999년도에 실시된 역학조사<sup>2)</sup>에서 1년 이내에 한 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우가 29%에서 2006년도에는 74.8%<sup>3)</sup>로 증가하여 일반인들의 보완대체의학 이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6년도 자료는 미발간 결과로 대한가정의학회 보완의학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보완대체의학 이용이 늘어나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의

과대학 학생, 전공의 및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 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에 있어 증가 추세인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교육을 간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의학과와 수련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차 수렴 된 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이끌어가는 지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에 보완대체의학의 교육도입의 필요성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의견,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 방 법

2006년도 2월 기준으로 대한가정의학회에 수련 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로 등록된 262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배포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접수일: 2008년 4월 18일, 승인일: 2008년 11월 20일

<sup>†</sup>교신저자: 송찬희

Tel: 02-3779-1377, Fax: 02-3779-1712

E-mail: chsong@catholic.ac.kr

우편 발송 시 설문지 및 반송 봉투를 동봉하였으며, 반송 봉투에는 번호를 기입하여, 설문 미작성자의 2차 설문 발송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2006년도 3월 14일에 전체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 262명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설문지 1차 발송을 실시하였다. 1차 발송 전에 2006년도 2월 11일 대한가정의학회 주최의 지도 전문의 워크숍에서 설문 조사를 하여 22개의 완성 설문을 얻었으며, 2006년도 2월 일개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모임에서 11개의 완성 설문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설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송 봉투에 발송 완료로 응답하게 하였다.

1차 발송을 통해 71개의 완성 설문 및 7개의 발송완료 답장을 얻어, 2006년도 5월 4일에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차 발송하였다.

설문 구성은 다음과 같았으며, 보완대체의학은 ‘현재로서는 현대정통의학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로 정의하였다.

1. 지도 전문의 특성: 성별, 연령, 지도전문의 경력, 보완대체의학 연구 경험 유무
2.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 중 보완대체의학 교육 필요성 의견
3. 향후 보완대체의학 교육 시 교육 내용 및 교육 주체에 대한 의견
4. 보완대체의학 교육 경험: 보완대체의학 교육 여부, 교육 형태, 교육 내용
5.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관한 전공의들의 요청 경험 및 대처

## 결 과

대한가정의학회 지도 전문의 워크숍에서 22개, 일개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모임에서 11개, 설문 1차 우편 발송을 통해 71개, 2차 발송을 통해 3개의 완성 설문을 얻어 전체 262명 중 총 107명(40.8%)의 완성 설문을 얻었다.

### 1. 설문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응한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 2.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대상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의견

1) 수련 과정 중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필요성에 관한 의견: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 중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7.6% (83명)이었고,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경우는 10.3% (11명)이었다. 나머지 10.3% (11명)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2) 향후 교육 시 교육 내용에 관한 의견: 72.9% (78명)에서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일부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15% (16명)에서 과학적 검증이 된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교육, 5.6% (6명)에서 과학적 검증과는 무관하게 많이 이용되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4.7% (5명)에서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3) 향후 교육 시 교육 주체에 관한 의견: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시 누가 주최가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1.7% (66명)에서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주최가 되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했고, 22.4% (24명)에서 보완대체의학 연관 학회, 8.4% (9명)에서 대한의사협회, 6.5% (7명)에서 각 병원이 교육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 3.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대상 보완대체의학 교육 경험

1) 보완대체의학 교육 여부 및 교육 형태(표 2):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46.8%에서 전공의들에게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교육 형태에서는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36.4%에서 집담회에서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6%에서는 일부 보완대체의학 시술 교육, 12.1%에서는 일부 이론 교육, 10.3%에서는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설문에 응한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의 특성(n=107명).

특성	범주	빈도(%)
성별	남자	78 (72.9)
	여자	29 (27.1)
나이(세)	30~39	46 (43.0)
	40~49	50 (46.7)
	50~59	8 (7.5)
	≥60	2 (1.9)
지도전문의 경력(년)	~2	18 (16.8)
	3~5	28 (26.2)
	6~9	16 (15.0)
	≥10	45 (42.1)
	보완대체의학과 연관된 연구 경력	있다
없다		64 (59.8)

**표 2.**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인들의 전공의 대상 보완대체의학 교육(n=107명).

특성	범주	빈도 (%)
보완대체의학 교육 여부	한다	52 (46.8)
	안한다	55 (51.4)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관한 경험 (중복 응답)	집담회에서 내용을 다룬 적 있다	그렇다 39 (36.4) 아니다 68 (63.6)
	일부 시술에 대해 교육한다	그렇다 21 (19.6) 아니다 86 (80.4)
일부 이론에 대해 교육한다	그렇다	13 (12.1) 아니다 94 (87.9)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교육한다	그렇다 11 (10.3) 아니다 96 (89.7)

**2)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인들의 전공의 대상 보완대체요법 교육 내용 및 시간**

(표 3): 구체적인 전공의 교육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53.8%에서는 비특이적인 문헌 고찰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9.2%에서 생물학적 요법에 관한 교육, 17.3%에서 신체요법과 신체에 기초한 요법 교육, 11.5%에서 총론 교육, 9.6%에서 심신의학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다.

교육 시간은 비정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6.9%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4.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인들의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관한 전공의들의 요청 경험 여부 및 그에 대한 교육 방안 의견**

전공들에게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7.1% (29명)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공의의 교육 요청 시 교육 방안에 관해서는 교육이 가능한 다른 학회나 연구회와 연결시켜 교육을 시키겠다는 대답이 65.4% (7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내가 직접 교육을 하겠다는 답이 23.4% (25명)이었고, 병원 내 다른 전문의에게 교육을 의뢰하겠다는 답과 무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7% (4명)을 차지하였다.

**고 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인들의

**표 3.**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인들의 전공의 대상 보완대체요법 교육 내용 및 시간 (n=52명).

특성	빈도 (%)
보완대체의학 교육 내용(중복 응답)	
비특이적 문헌 고찰	28 (53.8)
생물학적 요법	10 (19.2)
임상 영양	8 (15.4)
비타민 요법	1 (1.9)
약초 요법	1 (1.9)
신체요법과 신체에 기초한 요법	9 (17.3)
근자요법(IMS)	6 (11.5)
척추교정	1 (1.9)
근육학	1 (1.9)
증식요법	1 (1.9)
총론 교육	6 (11.5)
심신의학	5 (9.6)
바이오피드백	3 (5.8)
스트레스 관리	2 (3.8)
침술	2 (3.8)
기타(태반요법)	1 (1.9)
보완대체의학 교육 시간	
비정규적	40 (76.9)
월 1회 이상 교육	6 (11.5)
연 3~11회 교육	6 (11.5)

77.6%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의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8%가 이미 어떤 형태로건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체계적이 못하여,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 내 체계적인 보완대체의학 교육 도입 및 보완대체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에 답한 지도 전문의들 모두 의학 대학이나 전공의시기에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보완대체의학과 연관된 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과반수 미만인 38.3%정도 임에도 대다수의 지도 전문의들이 보완대체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국내에서의 보완대체의학 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이에 대한 노력 및 시도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의과대학 내 보완의학 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점차로 보완대체의학을 교육하는 의과대학이 늘고 있다. 2006년 기준 전국 41개의 의과대학 중 16개의 대학(39%)에서 보완요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대체의학의 교육에 관한 접근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23개의 대학의료센터들로 구성된 통합의학 교육단체인 CAHCIM (Consortium of Academic Health Centers for Integrative Medicine)을 구성하였으며, 2004년도 CAHCIM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통합의학 교육 커리큘럼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4)</sup> 2007년도에는 미국 국립 보완대체의학국(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15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보완대체의학교육을 위한 장애, 전략 및 교훈이 소개되었다.<sup>5)</sup>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시도 및 논의가 보완대체의학과 정통의학과 결부시킨 통합의학 형태로 권고되고 있다. 1999년 Society of Teachers of Family Medicine (STFM) Group에서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보완대체의학을 정식 수련 과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지침을 제시하였다.<sup>6)</sup>

Maizes 등<sup>7)</sup>은 통합의학적 가정의학 프로그램(The Integrative Family Medicine (IFM) Program)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과정과 통합의학 fellowship을 접목한 4년 과정 프로그램이다. 저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 숙련된 통합의학전문의로부터 진료를 원하는 환자군, 그와 같은 수련을 원하는 의사군, 통합의학 수련 과정이 부족한 의료계, 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 사이에 가정의학의 관심이 감소하는 현상을 되돌리고자 새로운 전략을 찾는 가정의학 교육 지도자군들의 필요성의 부합 등을 들었는데,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내의 의료 환경과도 부합되는 바가 있다. Kligler 등<sup>8)</sup>은 가정의학 수련과정 내 통합의학교육의 편입 시 필요한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보완대체의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지식 습득 및 이를 위한 유용한 자원(resource)의 확보가 중요한데, Gaster 등<sup>9)</sup>은 15개의 미국국립 보완대체의학국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보완대체의학교육 원칙 및 지속 교육을 위해 유용한 자원들을 추천하였고, 이는 향후 근거검색 및 지식습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여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단계이며 전공의 수련의 과정 중의 보완대체의학 교육 도입은 논의된 바 없으며, 교육에 관한 필요성 인식에 관한 조사조차 시도 된 바 없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 2/3이상의 지도전문의에서 수련 과정 시 보완대체의학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조사 결과에서 전공의로부터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1%이었는데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및 임상경험이 없는 전공의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며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가 지도전문의들의 보완대체의학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반수이상의 지도 전문의들이 향후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의 주체가 대한가정의학회이어야 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대한가정의학회 내에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회의 활성화 및 정책적인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대한가정의학회 내에서는 2007년 2월 소수의 지도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한 보완대체의학 연구회 모임이 있으며, 2007년 6월에는 통합의학 연구회가 형성 되어 통합의학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 두 연구회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역할을 시행하는 상태는 아니며,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의학에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의 하나는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의 문제이다.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은 대다수의 의료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식도 부족하여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관한 지침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교육 내용을 보면 비특이적인 문헌고찰이 주를 이루며, 교육 시간도 비정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집담회에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일부 내용을 다루거나, 일부에서 제한된 시술, 이론, 개요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체계적이지 못하며 소극적인 양상이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지도 전문의들이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나 교육 주체에 대해서는 대한가정의학회나 교육이 가능한 다른 학회나 연구회를 지목하였고, 본인이 직접 교육을 하겠다는 답한 한 경우는 23.4%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교육을 전공의 수련과정에 편입시킨다고 해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여건이 큰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지도 전문의들이 향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일부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인데, 수많은 보완대체요법 중 무엇을 교육을 할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중심의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팀을 형성하되 보완대체의학의 분류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현재 중심 없이 진행되는 교육의 체계를 잡아야 하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Sampson<sup>10)</sup>은 대다수의 미국의과대학의 보완대체의학 교과과정이 보완대체의학에 관해 무비판적이고 지지적인 평가에 의해 시행되는데 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 과정이 보완대체의학 요구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방법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교육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의사들의 관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인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의 가정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90%의 가정의들이 보완의학치료를 진료시 고려하며, 70%에서 여러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sup>11)</sup> 미국의 일차진료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우편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심신요법과 생활습관조정에 의사들이 관심을 나타내었다.<sup>12)</sup> 영국의 젊은 일반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6%에서 보완대체요법을 한 가지 이상 임상적용한 적이 있거나 임상적용을 위해 알아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sup>13)</sup> 네덜란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60%의 일반의들이 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sup>14)</sup> 뉴질랜드 전국의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0%의 일반의들이 1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을 진료한다고 했고, 32% 일반의에서 보완대체요법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29%에서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결과를 보여 주었다.<sup>15)</sup> 호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80%이상의 일반의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위해 치료자에게 환자를 의뢰하였다고 답하였다.<sup>16)</sup>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40.8%로 49.2%가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의 조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완대체의학

에 관심이 적은 지도 전문의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 대상군의 선택 비뮈림(selection-bias)의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의견, 교육 경험이 과대평가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런 요소를 보정한 지도 전문의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현재 보완대체의학의 정의가 포괄적이며 수많은 요법에 대한 범주 및 분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문에 답한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 개개인이 보완대체의학의 개념 및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도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현재로서는 현대정통의학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로 정의하였고 보완대체의학의 구체적인 요법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 전문의 개개인의 지식에 의해 보완대체의학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전공의들 대상의 보완대체의학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기입을 하도록 하였다.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합의된 범주와 세세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도 전문의 개인의 지식 및 판단에 의존해야 했던 점도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답한 많은 가정의학과 지도 전문의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 교육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경험은 이에 비해 적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보완대체의학 교육의 필요성 인지와 달리 교육 경험이 낮은 이유 및 교육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고, 이를 근거로 한 실제 교육에의 반영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 내에 보완대체의학의 교육을 위한 인적 구성 및 교육회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주혜 교수님, 박혜민 선생님, 정설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ABSTRACTS

###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AM Education for Family Practice Residents by Family Practice Training Faculty in South Korea

Sun Myeong Ock, M.D., Ph.D., Chul Min Kim, M.D., Ph.D.,

Whan Seok Choi, M.D., Ph.D., Sang Yhun Ju, M.D., Ho Cheol Shin, M.D.\*, Chan Hee Song, M.D., Ph.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angbuk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use is popular and current trend suggests a demand for CAM education during residency training. Our objective was to assess perception, the need and experience of CAM education for family practice residents by training faculty.

**Method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family physicians (n=262) who were registered in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as residency training faculty between February and May 2006.

**Results:** One hundred and seven (40.8%) of 262 faculty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Eighty three (77.6%) respondents recognized the need of CAM education during residency training and fifty two (46.8%) respondents have already educated some kind of CAM. Thirty nine (36.4%) respondents replied that partial CAM educational contents were given out at conferences. Seventy eight (72.9%) respondents recognized the need for educating residents on the general outlines of CAM along with education on verified CAM. Sixty six (61.7%)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should host such education.

**Conclusion:** Most family practice training faculty recognized the need for providing CAM education for family practice residents during residency training, but about an half of family practice training faculty did not have experiences of CAM educa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8;29:932-938)

**Key words:** CAM, medical education, family medicine, residency training, resident training staff

### 참 고 문 헌

1.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hat i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ttp://nccam.nih.gov/health/whatiscam>
2. Hong C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J Altern Complement Med* 2001;7 Suppl 1:S33-40.
3. 옥선명.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2006년도 National Survey. *가정의학회지* 2007;28(11부록): S139.
4. Kligler B, Maizes V, Schachter S, Park CM, Gaudet T, Benn R, et al. Core competencies in integrative medicine for medical school curricula: a proposal. *Acad Med* 2004;79(6):521-31.
5. Sierpina VS, Schneeweiss R, Frenkel MA, Bulik R, Maypole J. Barriers, strategies, and lessons learned fro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urricular initiatives. *Acad Med* 2007;82(10):946-50.
6. Kligler B, Gordon A, Stuart M, Sierpina V. Suggested curriculum guideline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recommendations of the Society of Teachers of Family Medicine Group on Alternative Medicine. *Fam Med* 1999; 31(10):30-3.
7. Maizes V, Silverman H, Lebensohn P, Koithan M, Kligler B, Rakel D, et al. The integrative family medicine program: an innovation in residency education. *Acad Med* 2006;81(6): 583-9.
8. Kligler B, Koithan M, Maizes V, Hayes M, Schneider C, Lebensohn P, et al. Competency-based evaluation tools for integrative medicine training in family medicine residency: a pilot study. *BMC Med Educ* 2007 18;7:7. Available from: URL:<http://www.biomedcentral.com/1472-6920/7/7>
9. Gaster B, Unterborn JN, Scott RB, Schneeweiss R. What should students learn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cad Med* 2007;82(10):934-8.
10. Sampson W. The need for educational reform in teaching about alternative therapies. *Acad Med* 2001;76(3):248-50.
11. Berman BM, Singh BK, Lao L, Singh BB, Ferentz KS, Hartnoll SM. Physician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medicine: a regional survey. *J Am Board Fam Pract* 1995;8(5):361-6.
12. Berman BM, Singh BB, Hartnoll SM, Singh BK, Reilly D. Primary care physicians and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training, attitudes, and practice patterns. *J Am Board Fam Pract* 1998;11(4):272-81.
13. Reilly DT. Young doctors' views on alternative medicine. *Br Med J (Clin Res Ed)* 1983;287:337-9.
14. Visser GJ, Peters L. Alternative medicine and general practitioners in The Netherlands: towards acceptance and integration. *Fam Pract* 1990;7(3):227-32.
15. Poynton L, Dowell A, Dew K, Egan T. General practitioners' attitudes toward (and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 New Zealand nationwide survey. *N Z Med J* 2006;119(1247):U2361.
16. Pirodda MV, Cohen MM, Kotsirilos V, Farish SJ. Complementary therapies: have they become accepted in general practice? *Med J Aust* 2000;172(3):105-9.

## 부 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가정의학과 수련 병원의 전공의 지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 실태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 귀하의 지도전문의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1년 미만    1~2년    3~5년    6~10년    10년 이상
4. 나는 보완대체의학과 연관된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 보완대체의학은 ‘현재로서는 현대정통의학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보완대체의학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5. 현재 보완대체의학을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 그렇다고 하신 경우 어떤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중복 선택 가능)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교육한다.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만을 교육한다.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시술에 대해 교육한다.  
 집담회에서 일부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 교육하시는 내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6.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모르겠다
7. 만약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일부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에 필요하다.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학적 검증이 된 일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학적 검증과는 무관하게 많이 이용되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8. 만약 전공의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누가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보완대체의학 연관 학회    각 병원
9. 전공의들에게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10. 전공의들이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교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교육시키겠다.  
 병원의 다른 전문의를 시켜 교육시키겠다.  
 교육이 가능한 다른 학회나 연구회와 연결시켜 교육시키겠다.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므로 무시하겠다.